

댄스스포츠 참여 부부의 성격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

장채욱¹, 서수진^{2*}

¹인천대학교 스포츠 과학연구소 연구원, ²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Marital Intimacy according to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ouples Participating in Dance Sports

Chae-ouk Jang¹, Soo-Jin Seo^{2*}

¹Researcher, Sports Science Institut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²Processor, Dept. of Physical Education, Seo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댄스스포츠 참여 부부의 성격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댄스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부부 148쌍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SS 25.0과 AMOS 25.0을 이용하여 APIM모형을 분석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신경증과 관련하여 남편과 아내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아내의 신경증은 부적 영향을 받았고 아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방성과 관련하여 남편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아내의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는 동일 수준의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향성과 관련하여 아내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실성과 관련하여 남편과 아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서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친화성과 관련하여 아내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부는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선용하고 긍정적인 부부여가문화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댄스스포츠, 부부, 성격, 부부친밀감, 자기 및 상대 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Marital Intimacy according to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ouples Participating in Dance Sports. The study participants collected data on 148 couples participating in dance sports. After analyzing the APIM model using SPSS 25.0 and AMOS 25.0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usband and wife in relation to neurosis among personality traits, and the wife's neurosis about the husband's marital intimacy was affected by amulets and the wife was found to have relatively low static effect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ly to the husband in relation to openness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he wife's openness to the husband's marital intimacy was found to be relatively malleable, and the wife was found to be subject to the same level of static influence.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in relation to extroversion only to the wife, and it was found that the wife was subject to relatively low static influence. Fourt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usband and wife in relation to sincerity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hey appeared to have a static effect on each other. Fifth,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only to the wife in relation to affinity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he wife was found to be subject to relatively low static influence.

Key Words : Dance Sports, Married Couples, Personality Characteristic, Marital Intimacy, Actor and Partner Effects

*Corresponding Author : Soo-Jin Seo(ssj7525@empas.com)

Received January 5, 2021

Accepted February 20, 2021

Revised February 1,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1. 서론

부부는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자발적으로 맺는 비 혈연관계로 법적으로 가족이 형성되면서 고유한 체계의 특성과 일련의 규칙, 고유한 기능, 의사소통, 성격 등을 서로 맞추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발전시켜 나아가 사회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1].

이러한 부부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고 화목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부는 서로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2]. 친밀감이란 인간 내면의 깊은 연합 또는 결합과 연관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까지도 노출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또한 자기 유익보다는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일환으로 최근 에 부부의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댄스스포츠의 특성상 남, 여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서로 매너와 에티켓을 지키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부부에게는 매우 이상적인 여가스포츠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댄스스포츠에 참여하는 부부들의 의사소통과 친밀감 및 참여만족도에 효과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부부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3, 4], 부부갈등해소와 결혼만족과의 관계[5, 6], 댄스스포츠 참가로 인한 부부친밀감 및 참여만족의 관계[7, 8, 9]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초기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댄스스포츠 참여가 부부친밀감, 의사소통, 갈등해소, 결혼만족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주목해 볼 수 있다. 부부댄스스포츠 동호회의 연구[9]에서 부부가 댄스스포츠를 수행하면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갈등의 양상이 발견되었는데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불만이 내포되어 있으며 심지어 남편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말과 행동에 무조건 감수해야 됨을 밝힌 바 있다. 실질적으로 엘리트 선수들 사이에서도 파트너에 대한 갈등으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며[10],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체면손상이나 기술부족, 배려부족 등으로 댄스스포츠 수행 시에 다양한 갈등요인이 발생되고 있다[11].

이렇듯 부부가 함께 댄스스포츠라는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부부친밀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서로에 대한 부부친밀감과 이에 대한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개인적인 성격이 미치는 영향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성격은 환경에 대한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상대방의 지각과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 개인의 행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격적인 특징을 내포하는 것으로 부부 개개인의 성격 및 성격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두 성격 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야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12].

부부관계에 대한 성격특질로 가장 많이 연구되어진 성격 모델은 Big Five Index(BFI)[13]로 개방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우호성(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진 성격 특질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성격에 따른 결혼만족도[12]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여가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통해 부부친밀감[7, 8]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부의 성격의 영향이나 상대성 효과에 관한 연구는 현재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댄스스포츠 참여 부부의 5가지 성격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부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적용하여 본인(자기효과; actor effect)과 배우자(배우자효과; partner effect)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댄스스포츠 참여 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친밀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데 매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댄스스포츠의 올바른 여가문화를 형성하고 앞으로 댄스스포츠 부부문화의 학문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부부의 성격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댄스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부부 148쌍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수도 권소재의 댄스스포츠 강좌가 개설된 클럽 현장에서 약 20분간 실시되었으며, 사전에 클럽 및 동호회 운영진에

게 연구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부부는 약 200쌍이었으나, 조사내용의 불성실 또는 총 문항의 20%이상의 결측치를 포함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10% 내외의 결측치를 포함한 자료는 각 문항의 평균으로 대체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부부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Husband year	30years	26	17.6
	40years	34	23.0
	50years	61	41.2
	over 60years	27	18.2
Wife year	30years	31	20.9
	40years	33	22.3
	50years	67	45.3
	over 60years	17	11.5
Husband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ion	47	31.8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101	68.2
Wife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ion	30	20.3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118	79.7
Job	Couple income	80	54.1
	Sole income	68	45.9
Participation period	Under 1years	26	17.6
	1~3years	46	31.1
	3~5years	43	29.1
	over 5years	33	22.3
Participation frequency /Week	1-2	38	25.7
	3-4	71	48.0
	over 5	39	26.4

구체적으로 남편의 연령은 30대 26명(17.6%), 40대 34명(23.0%), 50대 61명(41.2%), 60대 이상 27명(18.2%)인 반면, 아내의 연령은 30대 31명(20.9%), 40대 33명(22.2%), 50대 67명(45.3%), 60대 이상 17명(11.5%)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남편은 고졸 48명(31.8%), 대졸이상 101명(68.2%)이며, 아내의 경우 고졸 30명(20.3%), 대졸이상 118명(79.7%)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업유무는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맞벌이 80쌍(54.1%), 한명만 참여하는 경우가 68쌍(45.9%)으로 나타났다. 댄스스포츠 참여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26쌍(17.6%), 1-3년 46쌍(31.1%), 3-5년 43쌍(29.1%), 5년 이상 33쌍(22.3%)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당 댄스스포츠 참여 빈도는 1-2회 38쌍(25.7%), 3-4회 71쌍(48.0%), 5회 이상 39쌍(26.4%)으로 조사되

었다.

2.2 조사도구

댄스스포츠에 참여하는 부부의 성격특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상호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일반적 특성 5문항, 성격특성 Big 5인 25문항, 부부친밀감 척도 15문항, 총 45문항이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문항분석을 기초로 구조타당도 및 내적일관성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2.1 부부의 성격특성 Big 5

부부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성인의 성격특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발간된 Big Five Index(BFI), [13]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신경증 5문항, 개방성 5문항, 외향성 5문항, 성실성 5문항, 친화성 5문항 총 25문항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형식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수집된 148쌍, 296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265) = 412.05$, RMSEA= .044, CFI=.931, TLI=.919, SRMR=.051의 비교적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이때 각 요인의 신뢰도 α 계수는 .69 - .84의 범위로 나타났다. 구체적 결과는 Fig. 1과 같다.

2.2.2 부부의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 척도는 [14]의 PAIR(Personal Assessment of Intimacy in Relationship)과 [15]의 IRS(Intimate Relationship Scale), [16]의 SOH(Sharing of Hurts), 그리고 [17]의 CI(Commitment Inventory)를 기초로 [18]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5문항, 정서적 5문항, 성적 5문항 총 15문항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의 합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다고 해석되었다. 질문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87) = 139.75$, RMSEA= .046, CFI=.961, TLI=.955, SRMR=.027의 비교적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이때 신뢰도 α 계수는 .71 - .8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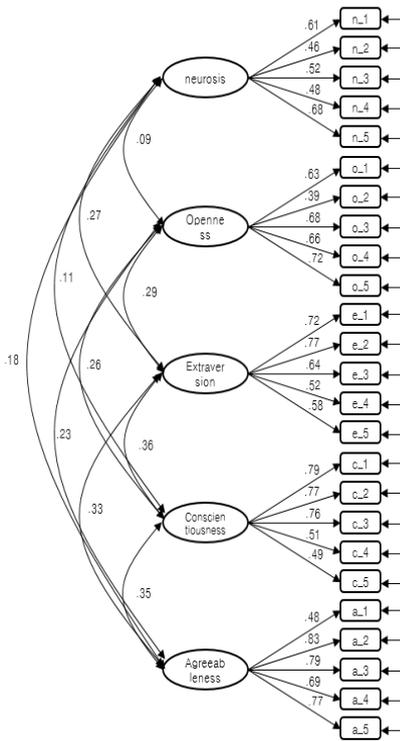


Fig. 1.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ig 5 CFA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87) = 139.75$, RMSEA= .046, CFI=.961, TLI=.955, SRMR=.027의 비교적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이때 신뢰도 α 계수는 .71 - .80로 나타났다. 구체적 결과는 Fig. 2와 같다.

2.3 자료 분석

설문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AMOS 2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내적일관성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부부의 성격특성과 부부친밀감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부의 관계에서 성격특성과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별 합점수를 이용하여 APIM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때 모형의 해석을 위해 원자료를 표준화시켜 상대 비교하였다. 분석의 유의수준은 $\alpha = .05$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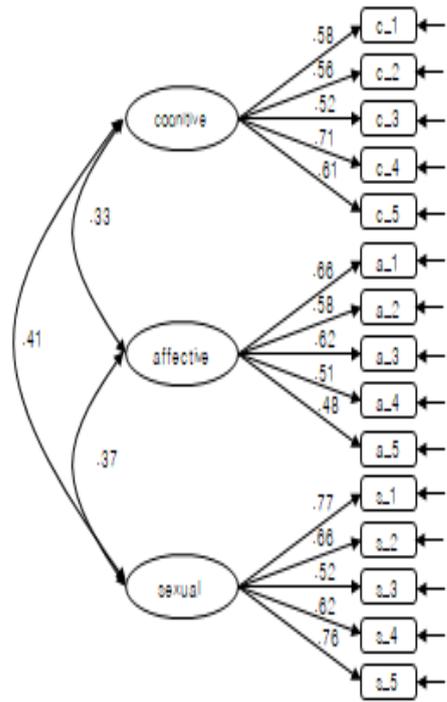


Fig. 2. Marital intimac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 연구결과

3.1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댄스스포츠에 참여하는 부부의 성격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격특성의 하위요인별 합점수와 부부친밀감 전체 점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부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요인 관련에서 부정(-) 상관계수를 나타내었으며, 그 외 전반적으로 양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구체적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3.2 성격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 효과

댄스스포츠에 참여하는 부부의 성격특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기본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를 기초로 상대효과와의 제약을 통해 두 모형간 χ^2_D 차이검증을 통해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factor	1	2	3	4	5	7	8	9	10	11	12	
husband's neurosis	1.00											
husband's openness	-.24**	1.00										
husband's extroversion	-.14	.31**	1.00									
husband's sincerity	-.11	.32**	.34**	1.00								
husband's affinity	-.42**	.27**	.23**	.39**	1.00							
wife's neurosis	.17*	.09	.13	.07	.04	1.00						
wife's openness	-.15	.19*	.14	.21**	.26**	-.17*	1.00					
wife's extroversion	-.22**	.19*	.11	.25**	.21**	-.09	.32**	1.00				
wife's sincerity	-.11	.22**	.11	.27**	.21**	-.22**	.25*	.27**	1.00			
wife's affinity	-.09	.22**	.21**	.25**	.24**	-.31**	.36**	.34**	.39**	1.00		
husband's marital intimacy	.17*	.13	.20**	.20**	.11	-.16	-.11	.19*	.28**	.21**	1.00	
wife's marital intimacy	.13	.27**	.11	.24**	.17*	.37**	.19*	.37**	.11	.36**	.27**	1.00
M	3.53	3.43	3.42	3.69	3.56	3.48	3.63	3.77	3.51	3.66	3.65	3.77
SD	.71	.76	.70	.67	.74	.71	.68	.64	.72	.69	.82	.81

3.2.1 신경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 및 상대효과

성격특성 Big 5의 하위요인 중 신경증요인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Fig. 3과 같다.

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beta = .20$ 과 아내효과 $\beta = -.19$ 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크기는 차이가 없으나, 그 관계가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아내의 신경증이 상대적으로 동일 수준의 영향 관계를 나타내지만, 상이한 부적(-)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신경증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아내의 신경증 자기효과와 남편의 상대효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chi^2_D(1) = 5.82, p = .016$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beta = .36$ 과 남편효과 $\beta = .07$ 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남편의 신경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적(+) 영향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신경증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남편의 신경증 자기효과와 아내의 상대효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chi^2_D(1) = 9.97, p = .002$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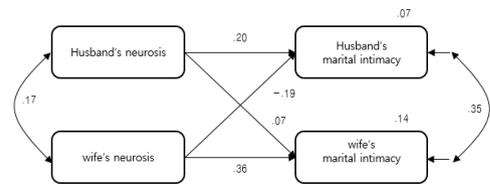


Fig. 3.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neurosis and marital intimacy

3.2.2 개방성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 및 상대효과

성격특성 Big 5의 하위요인 중 개방성요인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Fig. 4와 같다. 분석결과, 먼저,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개방성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남편의 개방성 자기효과와 아내의 상대효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chi^2_D(1) = 5.32, p = .02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beta = .16$ 과 아내효과 $\beta = -.14$ 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크기는 차이가 없으나, 그 관계가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아내의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동일 수준의 영향 관계를 나타내지만, 상이한 부적(-)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개방성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아내의 개방성 자기효과와 남편의 상대효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chi^2_D(1) = .64, p = .42$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beta = .14$ 와 남편효과 $\beta = .24$ 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남편의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동일 수준의 정적(+) 영향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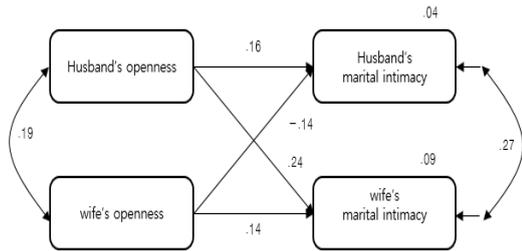


Fig. 4.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openness and marital intimacy

3.2.3 외향성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 및 상대 효과

성격특성 Big 5의 하위요인 중 외향성요인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Fig.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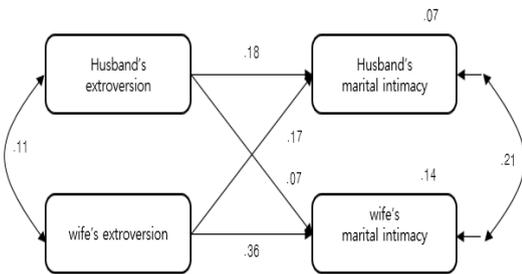


Fig. 5.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extroversion and marital intimacy

분석결과, 먼저,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외향성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남편의 외향성 자기효과와 아내의 상대효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chi^2_D(1) = .001$, $p = .93$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beta = .18$ 와 아내효과 $\beta = .17$ 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아내의 외향성이 상대적으로 동일 수준의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외향성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아내의 외향성 자기효과와 남편의 상대효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chi^2_D(1) = 6.36$, $p = .01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beta = .36$ 과 남편효과 $\beta = .07$ 은 상대적으로 상이한 영향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남편의 외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적(+) 영향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2.4 성실성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 및 상대 효과

성격특성 Big 5의 하위요인 중 성실성요인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Fig.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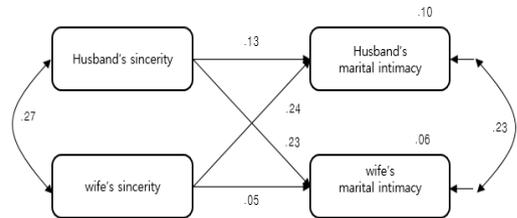


Fig. 6.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sincerity and marital intimacy

분석결과, 먼저,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성실성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남편의 성실성 자기효과와 아내의 상대효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chi^2_D(1) = .71$, $p = .39$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beta = .13$ 과 아내효과 $\beta = .24$ 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아내의 성실성이 상대적으로 동일 수준의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성실성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아내의 성실성 자기효과와 남편의 상대효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chi^2_D(1) = 1.79$, $p = .17$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beta = .05$ 와 아내효과 $\beta = .23$ 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남편의 성실성이 상대적으로 동일 수준의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2.5 친화성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 및 상대효과

성격특성 Big 5의 하위요인 중 친화성요인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Fig. 7과 같다.

분석결과, 먼저,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친화성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남편의 친화성 자기효과와 아내의 상대효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chi^2_D(1) = 1.01, p = .3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beta = .06$ 과 아내효과 $\beta = .19$ 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아내의 친화성이 상대적으로 동일 수준의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친화성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아내의 친화성 자기효과와 남편의 상대효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chi^2_D(1) = 3.99, p = .045$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beta = .34$ 와 남편효과 $\beta = .09$ 는 상대적으로 상이한 영향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남편의 친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적(+) 영향 관계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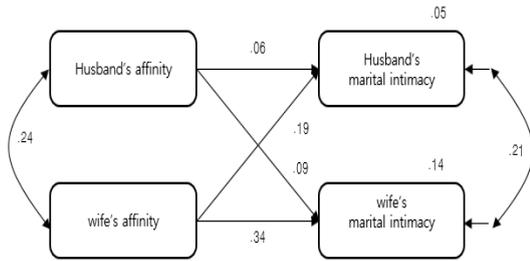


Fig. 7.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affinity and marital intimacy

4. 논의

본 연구는 댄스스포츠 참여 부부의 성격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른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성격특성 중 신경증과 관련하여 남편과 아내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아내의 신경증은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

내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남편의 신경증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가 신경증이 낮을수록 남편의 부부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9]의 연구에서 댄스스포츠는 남성과 여성의 커넥션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남편의 리더로 시작하는 댄스스포츠의 기본원리에 의한 움직임의 구성과도 연관성이 있다. [12]의 연구에서 신경증은 부부관계에서도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댄스스포츠 수행 시에도 남편은 아내가 신경증이 낮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아 질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격특성 중 개방성과 관련하여 남편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아내의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의 부부친밀감에서 남편의 개방성은 동일 수준의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의 개방성이 낮을수록 남편이 부부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방성을 가진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관에 개방되어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지적이며 문화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아간다 [19]. 아내가 댄스스포츠 수행 시 서로 호흡을 맞추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나 가치관을 표출하면 남편은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20]의 연구에서 남성은 자신의 실력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도 남성의 리더에 순종하는 여성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부부의 개방성은 클럽 및 동호회 운영 안에서도 다른 부부와 접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데 동호회를 유지하고 화합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집안 정보에 대해 공유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빈번한 회식 등으로 인하여 부담감을 감수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9]. 따라서 남편은 아내의 개방성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아내가 다른 부부에 대한 관계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을 더욱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관련하여 아내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부부친밀감에는 아내의 외향성이 상대적으로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의 부부친밀감에서 남편의 외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서로 외향성이 높을수록 댄스스포츠 수행 시에 부부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아내가 느끼

는 남편의 외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남편이 댄스스포츠 수행 시 너무 지나치게 리드를 하고 활기차고 포부 있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적으로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아내는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부부사이에 적절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호회 구성원 간에도 긍정적인 교류를 통해 대인관계 및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1].

넷째, 성격특성 중 성실성과 관련하여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서로에 대하여 성실성을 나타낼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서로에 대하여 사려 깊고 분별력 있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댄스스포츠 수행시 과제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고 서로 조직력을 발휘하여 이끌어 나가야 한다. [22]는 댄스스포츠 수행시 가장 좋은 파트너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목표 중 나와 같은 목표를 갖고 연습 시 호흡 및 동작 표현에 집중을 잘 하는 파트너임을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다섯째, 성격특성 중 친화성과 관련하여 아내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아내의 친화성은 상대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의 부부친밀감에서는 남편의 친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서로 친화성이 높을수록 댄스스포츠 수행시에 부부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아내가 느끼는 남편에 대한 친화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조금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은 부부가 오랜 기간 댄스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친화성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시간 참여하게 되면 정서적 친밀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을 볼 때 남편보다 아내가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적절한 운동시간을 맞추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댄스스포츠는 남녀가 하는 종목으로써 부부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 수 있는 독특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성격과 상대방의 성격을 서로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댄스스포츠 수행시 서로의 동작을 커넥션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더 부부애를 애뜻하게 만들 수 있고 서로에 대한 매너와 배려를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댄스스포츠 참여 부부의 성격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연구 대상자는 댄스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부부 148쌍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SS 25.0과 AMOS 25.0을 이용하여 APIM모형을 분석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격특성 중 신경증과 관련하여 남편과 아내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아내의 신경증은 부적 영향을 받았고 아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격특성 중 개방성과 관련하여 남편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아내의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는 동일 수준의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관련하여 아내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격특성 중 성실성과 관련하여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서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격특성 중 친화성과 관련하여 아내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부의 개인적인 성격과 상대방의 성격에 따라 부부친밀감이 서로 상이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로 상호 보완하여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선용하고 긍정적인 부부여가문화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댄스스포츠에 참여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그 한계가 따른다. 둘째, 후속연구로 댄스스포츠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파트너에 대한 자기효과 및 상대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도된다면 댄스스포츠 수행시 몰입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다양한 요인을 적용하여 부부를 위한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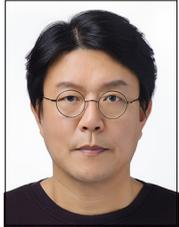
REFERENCES

- [1] I. Goldenberg & H. Goldenberg. (1996). *Family therapy: An overview(4th ed)*. Pacific Grove, CA: Books/Cole.
- [2] H. K. Choi, J. K. Kang & S. J. Shin. (1999).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in marriage among Korean people: A test of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7(4), 47-59.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089198
- [3] K. R. Kim, K. I. Lee & M. S. Jung. (2001). Relationship between House Wife's Participation on Dance Sports, Marital Communication, Marital Conflict Resolution and Marriage Satisfac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16, 1279-1294.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42648
- [4] D. S. Jeon. (2010). An Effect of the Dance Sports on its Participants'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19(1), 61-7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372038
- [5] K. I. Lee, M. S. Jung & K. R. Kim. (2001). Relationship between House Wife's Participation on Dance Sports, Marital Conflict Resolution and Marriage, Satisfac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16, 1225-1233.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42643
- [6] S. G. Lee, H. J. Jang, H. C. Yu, J. M. Kim & G. L. Kim. (2003). Relationship between Dance Sport's participant on Participation Type,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19(2), 979-989.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42912
- [7] S. M. Lee & E. Y. Kang. (2008). The Relationships among the Degree of Participation, Marital Intimacy and Participation Satisfaction of Husband and Wife Dance Sports Participants. *The Korean Society of Dance*, 55, 179-194. G704-000824.2008.55.55.005
- [8] S. G. Lee.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ies and Intimacy of Married Couple. *Sports Science Institute, Kookmin University*, 27, 47-59.
- [9] M. Y. Choi & M. H. Jung. (2016). An Ethnographic Understanding of Married Couples Dance Sports Club.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5(4), 133-143. G704-000541.2016.55.4.014
- [10] E. S. Yang & J. A. Kim. (2012). Development of Scale for Dancesport Athletes Renounce Halfway. *The Korean Journ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Science*, 14(3), 95-107.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66150
- [11] J. A. Kim, J. H. Hong & S. B. Kim. (2015). The Conceptual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Partner Conflicts Dancesport Competitor.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4(2), 491-5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98521
- [12] J. Y. Jang & S. T. Hwang. (2012). The relationships of between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7(2), 133-14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72188
- [13] V. Benet-Martinez & O. P. John. (1998). Los Cinco Grandes across cultures and ethnic groups: Multitrait-multimethod analyses of the Big Five in Spanish and Englis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3), 729-750.
DOI: 10.1037/0022-3514.75.3.729
- [14] M. T. Schaefer & D. H. Olson. (1981). Assessing Intimacy: The Pair Invent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47-60.
DOI: 10.1111/j.1752-0606.1981.tb01351.x|
- [15] S. F. Hetherington & K. L. Soeken. (1990). "Measuring Changes in Intimacy and Sexuality: A self-Administered Scale". *Journal of Sex Education & Therapy*, 16(3), 155-163.
DOI: 10.1080/01614576.1990.11074987
- [16] F. E. Stevens & L. L'abate. (1989).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theory-derived measure of intimac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7(4), 359-368. DOI: 10.1080/01926188908250782
- [17] S. M. Stanley & H. J. Markman. (1992). "Assessing Commitment in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3), 595-608.
DOI: 10.2307/353245
- [18] K. H. Lee. (1995). A Measure of Marital Intimac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3(4), 235-249. 1410-ECN-0102-2009-590-007324642
- [19] J. Y. Han & J. H. Bang. (2015).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eamwork Skills and Big Five.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8(2), 43-51. G704-001983.2015.18.2.006
- [20] J. E. Hwang & Y. C. Lee. (2005). An Ethnographic Understanding of the Partner Selection Process of Dance Sports Club Members. *Korea Sport Research*. 16(6), 283-294. 1410-ECN-0102-2009-690-001048957
- [21] E. Diener. (1984). Subjective welling-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DOI: 10.1007/978-90-481-2350-6
- [22] J. K. Lee & D. J. Song. (2017).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Good Partner Perceived by Dance Sports Player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3), 469-482.
DOI: 10.23949/kjpe.2017.05.56.3.35

- [23] E. Y. Kang & Y. C. Lee. (2008). The Relationships among the Degree of Participation, Emotional Expression and Participation Satisfaction of Husband and Wife Dance Sports Participa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22(1), 177-19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80741>

장 채 옥(Chae-ouk Jang)

[정회원]



- 2001년 2월 : 인천대학교 체육학과(석사)
- 2013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체육학과(박사)
- 2020년 12월 ~ 현재 : 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 관심분야 : 체육학

· E-Mail : chaeouk@hanmail.net

서 수 진(Soo-Jin Seo)

[정회원]



- 2002년 8월 : 충남대학교 체육학과(석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체육학과(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 여가

· E-Mail : ssj7525@empas.com